

##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4.4.25.(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성우 위원 7인(강건기, 박화선, 이상헌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시청자센터 부장

### ■ 주요 내용

####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4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1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편성된 연합뉴스TV의 국회의원 선거 <총선 2024 선택 우리의 내일> 개표방송은 치밀한 기획, 상당한 준비, 짜임새 있는 진행이 돋보인 수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표 상황을 전하는 아나운서들의 막힘없는 진행이 좋았습니다. 새벽 시간 깔끔한 진행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CG는 시각적으로 선명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이 제시됐습니다. 개표 추이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이 제공되지 않아 다소 아쉬웠습니다. 타 방송에서는 외부 선거 전문가, 전직 정치인, 정치부 기자들이 출연해 개표 추이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개표 방송은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개표 방송의 모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개표 중간에 패널들 대담을 많이 만들어 개표 추이에 대한 분석을 시시각각 예리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모자란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다음 선거 때는 더 나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안호림 부위원장

- 방송진행자 요청사항, 4월2일날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뉴스1번지 정치사색 코너에 나오는 출연자 4명에 대한 어떤 발언들이 모두한테 동등하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며. 예컨대 어떤 출연자 같은 경우 대통령 언급할 때는 존칭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얘기할 때는 대표님 이렇게 언급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정치 패널에서는 민감한 시청자들도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 4월4일 17:11 뉴스 자막스크롤에서 '전공의 이탈 서울아산병원 적자 511억 보존 17억뿐' '보존'과 '보전'은 무엇을 지킨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지녔지만, 보존은 그냥 두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대상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보전은 현재의 상태를 잘 지켜서 앞으로도 같은 상태에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보전이 조금 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게 좋겠습니다

- 사회분야 의견, 4월9일 16:01 연합뉴스TV의 전세 사기 피해 과다 보도 여파로 세입자 감

소,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보도에서 전세 계약 절차나 방법 등은 안내하는 내용을 보도하면 피해 감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정치 대담은 통상적으로 여야 한 명씩 출연을 시키거든요. 2명 출연에는 시간 배분때 어려가 잘 생기지는 않아요. 출연자가 4명이다 보니까 시간 배분에 좀 철저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존칭 사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까지 앵커가 개입해서 수정해주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 참 사실 어렵죠. 출연자 스스로 예의를 지켜주면 좋은데 자기 진영에 계신 분에 대해선 존칭을 써주고 반대 진영에 대해선 존칭을 안쓰는 분들 가끔 계세요. 이런 문제는 패널의 상식에 사실 맡겨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지나치거나 반복된다고 하면 나중에 패널 조정할 때 감안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습니다.

- 보존과 보전의 차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더 주의 하겠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사건 자체를 다루는 성격의 대담이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절차라든가 피해 방지법 등 같은 예방책까지는 미처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관련 대담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겠습니다.

#### ▲ 허인순 위원

[경제읽기] 여소야대 국회...금투세·밸류업 등 경제정책 향방은?, 치열했던 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기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했던 핵심 경제 정책 중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야권과 결을 달리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에 발표했던 정책인데 총선 패배와 미국 물가 지표 발표 등의 영향으로 법안 통과 및 물가 하락, 금리 하락이 어려워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전망의 보도입니다. 경제 읽기 프로그램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경제 쪽도 민감하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텐데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또 제가 늘 시청자위원회 때마다 말씀드렸던 영어 약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ISA'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종합자산관리계좌' 이렇게 설명을 중간중간에 잘 해주셔가지고 보면서 이해도도 높일수 있었고 총선 후에 경제 흐름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참고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돼서 잘 봤다고 칭찬드립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총선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라서 선거 결과가 경제 정책에 미칠 여파에 대해 분석하는 대담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즉각 반영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의 기획취재구성이 잘 되어있는 다다를인터뷰, 현장이슈, 채연삶의현장과 대조적인 씩속뉴스의 인기에 부합한 편향적 취재보도. 각 테마별 보도 구성은 목적에 맞는 취재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한달간 방송된 다다를인터뷰, 현장이슈, 채연삶의현장 등은 테마별 보도 구성에 맞게 기획 취재가 이루어져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씩속뉴스 보도를 보면 지난 한 달간 방송된 내용을 살펴보면 4월 14일 기준 10건 중 8건이 푸바오 뉴스 보도 기사로 푸바오 유튜브 채널 같은 느낌을 준다. 연합뉴스TV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며, 뉴스 보도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보도 테마 구성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취재 보도로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뉴스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것이다. 금번 연합뉴스TV의 테마별 보도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연합뉴스TV의 뉴스 스피드의 카테고리에 있는 다다를인터뷰, 현장이슈, 채연삶의현장의 기획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에 맞게 기획구성과 취재가 잘 되어있어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 볼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다다를 인터뷰] "다행히 까치발 하니까 닿아서..." 비오는 날 만난 '우산 천사'의 경우 10일 만에 65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준 기획 취재 내용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의 10여 초간의 짧은 우산을 씌워준 선행이었지만 어린 아이의 순수한 선행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다다를인터뷰 역시 이런 마음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고자 기획 취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씩속뉴스의 보도 내용들을 보면 Scene에 맞는 현장, 상황, 사건들의 뉴스 보도라기 보다는 클릭수만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취재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영상뉴스가 보도 되는 느낌이며, 씩속뉴스 기획 의도와도 맞지 않은 취재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4월 14일 기준 보도 내용 10건 중 8건이 푸바오 뉴스 보도 기사로 푸바오에 대한 근황을 보도하고 있다. 이 정도면 씩속뉴스 채널이 아니라 푸바오 유튜브 채널인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보도 기사의 다양성을 상실하고 영상 클릭 수가 많이 나온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방송을 한다면 공영방송인 연합뉴스TV가 개인 유튜브 채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앞으로 씩속뉴스가 기획 의도에 맞게 성의 있는 현장, 상황, 사건들의 기획 취재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취재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푸바오 관련은 사실 기성세대하고 MZ세대가 약간 관심사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나는 날 강철원 사육사 고별사를 생방송하겠다고 해서 반대했거든요. 팬다 고별사를 우리가 생중계까지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었는데요. 뉴스총괄부의 의견은 좀 다르더라구요. 국민적인 관심사가 너무 높아서 이번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경우 같습니다. 디지털 뉴스의 씩속뉴스에서 푸바오 제작 건수가 많았던 것도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콘텐츠라고 해서 흥미 유발, 클릭 수 늘리기에 치중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선정적으로 흐르기 쉽고 또 저희는 100% 민간 상업 방송도 아니고 공영성을 띤 방송이기 때문에 상업성과 공영성을 잘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강건기 위원(서면 제출)

- <여야 막판 유세 총력...“여성 혐오 확산법” vs “파퐁까지” 보도 관련>, 4월 6일 연합뉴스TV 총선 2024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의 선거유세 현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주로 양 당 대표의 유세 장면과 발언을 자극적인 자막으로 다루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총선 방송에 대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총선 방송에서는 총선 공약 분석, 팩트 체크 보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령, 여당인 국민의 힘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개혁당,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 출마한 당의 공약을 상세히 비교 분석하여 말 잔치가 아닌 실질적 정책 이행 공약인지에 대해 전문가 팩트 체크를 방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두 당대표의 유세 행보만을 보도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방송만큼 선거에 출마한 모든 당의 선거 활동에 대해 골고루 방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보도 관련>, 4월 5일 뉴스 투나잇에서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를 보도하면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를 들으면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왜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무효화 했는지 판결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할 때는 결과만 보도하기보다는 내용도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 ▲ 손영준 위원장

강근기 위원님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이번 선거는 유독 공약이 별로 부각이 안 됐던 선거 같습니다. 정권 심판에 이조 심판 이렇게 묻다 보니까 네거티브(negative)로만 흐르고 공약은 거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정책선거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정책 선거보도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4월 5일 밤 11시 정도 뉴스를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단신으로 보도가 됐고 그때는 아마 야근 기자가 외신을 기초로 단신으로만 처리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 날 저희가 리포트로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세한 결정 사유 같은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야간에도 단신 작성할 때부터 그런 점들을 좀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야근 기자다 보니까 조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도 좀 더 충실한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 진한수 위원

치매 환자 가정 되풀이 되는 아픔..."사회적 지원 절실" 해당 보도는 치매를 앓던 90대 어머니가 숨지자 이를 비관하여 두 명의 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짧게나마 자살 예방상담 전화, 정신건강 상담 전화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안내 자막을 함께 내보내는데,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들 중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 '노모가 구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한 후, 치매 질환 아버지 모시던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다른 사례를 소개하면서 '역시 치매안심센터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덧붙입니다. 해당 기사의 애초 의도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치매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치매안심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그 센터의 지원 혜택을 받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 중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조호 비용이 연간 36만 원에 그치고,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여 위 해당 기사의 애초 의도와 다소 상반되어, 현재 치매 안심 센터가 제공하는 지원 혜택이 아쉽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치매 안심 센터에 등록을 하는 경우 어떠한 지원으로 인해,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지 등 그 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 안심 센터가 운영하는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제안하는 방식이 보도의 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위 인터뷰 내용에서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이들의 전문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로 결정된다는 선입견을 줄 수 있으므로,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투자 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표현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사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폄훼한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데스크링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박화선 위원(서면 제출)

[연합뉴스TV 스페셜] 323회 : '국회의원 특권' 폐지 22대에선 가능할까? 4월 14일, 치열했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결과를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지역, 세대, 성별 등 각각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져 있던 마음들은 이제 모아야 될 때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지지받았던 국민들,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려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국민들도 국회의원에 대한 시각은 양면적이다. 특히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 보니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축소, 반값 세비, 불체포 특권 폐지등 국회의원들이 누려온 다양한 권한에 대해 없애거나 줄이는 공약들이 등장하며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이번 기획방송은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의 여론, 전직 국회의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졌던 특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특권은 안돼"라는 시각에서 정치영역의 현실상 불가피한 측면도 같이 알려주는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혐오의 대상이 아닌 공론의 대상으로 끌어낸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며, 제대로 일도 안하면서 무수히 많은 특권을 통해 특권층으로 귀속되는 모습에 국민들의 반감이 크다. 시대에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의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의원들 스스로에게 특권 내려놓기의 입법을 맡기기 보다 언론이 국민 정서,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특권 폐지에 대한 후속 보도를 통해 정치 개혁의 단초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손영준 위원장

박화선 위원님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저희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다뤘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총선 앞두고 시의적절했으나 조금 대안이 부족했다는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20분 정도 기획물을 다루다 보니까 큰 주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상을 지적하는 건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품이 더 많이 들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제작 여건에서 짧은 시간 내에 만들다 보니까 심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는 다음 22대 국회에서도 또 얘기가 될 테니까 저희가 그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 홈페이지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메인 화면 중간 부분에 1시간 내 '최신' 보도된 내용을 별도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한계가 있겠으나, 특정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이제는 연합뉴스TV 하면 떠오르는 소위 '간판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합니다.

- "놀 권리 보장해 주세요"...초등생들이 지역구 후보들에 이색 제안(4/8),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일꾼이자 투표권자이기도 한 초등학생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직접 정책 제안을 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어 초등학생들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특정 지역구에 한정된 내용이었으나 초등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체험까지 이어져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 제안이 개선되었으면 하고, 유사한 사례들이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지금은 시청률상으로도 저희가 2년 연속 YTN을 앞서고 있지만 아무래도 YTN이 업력 30년 이상 된 매체이기 때문에 인지도에서는 저희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인지도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항상 킬러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 아이디어라는 게 이제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눈에 확 띄고 뭔가 새롭다는 반응을 이끌어낼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결국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스타를 기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뒤서 화려하게 보이든지 이런저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노력은 해야 되니까 개편 때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큰 투자 안하고도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 6월 개편 때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장

(=심의실장)이 나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경희 심의실장(=뉴스총괄부장)

아직은 논의 중인 과정이라서 확정적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현장성을 좀 더 살리는 뉴스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자앵커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오프닝을 할 수도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장, 사건 사고라든가 아니면 논쟁이 벌어지는 현장이라든가 직접 진행을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서 직접 인터뷰를 시민들의 의견을 찬반 인터뷰를 직접 따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어떤 리포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식들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컨셉트에 맞춰서 구체적인 코너들을 지금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성을 살리는 뉴스입니다.

▲ 이상헌 위원(서면 제출)

- 지난 3월 말 GTX가 개통되면서 모든 언론들이 해당 내용을 단신으로 전하고,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 위주의 보도를 했었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리부팅 지방시대] GTX와 지방소멸'이라는 주제로 기획물을 내보냈는데,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이슈와 연결해서 새로운 교통체계로 인한 효과나 우려 사항들을 짚어보는 등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기획력이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펴보니, '리부팅 지방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매주 지방소멸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최근 의대 증원이나 의사나 환자의 서울 쏠림 현상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고,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획물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저출생 등 인구문제나 신성장동력 등에 대해서도 좀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난 4월 15일에는 '국민연금 월평균 노령 연금액 남녀격차 심해'(송고시간 2024-04-15 10:11:17)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혜택 받는 여성이 늘고 있지만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이 여성은 39만 원, 남성은 75.6만 원이라는 등의 내용과 그 원인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도로 짝맞하게 언급했습니다. 격차가 심하다는 내용에 맞게 팩트를 전달하긴 했습니다만 원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어떻게 보완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짚어줬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이상헌 위원님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리부팅 지방시대'에 대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는 얼마 전부터 시작한 프로인데 제가 봐도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상당히 지방을 좀 부각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평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단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하기는 사실 어려웠고요. 아마 리포트로 했어도 그렇게 심도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대토론회까지 개최하고 의견 수렴해야 될 정도의 아주 큰 의제인데 이것을 제대로 다루려면 아마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어

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짧은 단순화 리포트 내에서도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컴팩트하게, 내실 있게 기사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이성우 위원

- 세월호 참사 10년...부산서 대규모 해양 사고 대응 훈련(4.16.)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국민 안전의 날이기도 했습니다.이번 뉴스는 부산시가 부산해양경찰서 등 12개 관계기관과 함께 부산항대교 앞 해상 등에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해양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단신 보도였습니다. 이날 여러 언론에서는 정부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 지자체 등에서 국민 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보도했다 보니 연합뉴스TV에서 국민 안전의 날에 대한 소식은 이 뉴스 하나가 전부였다 보니 뭔가 밋밋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뉴스TV가 지난해에는 아이들이 안전 체험관에서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현장 취재, 정부 행사에서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정책 점검을 당부하는 모습,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추모 행사 등 다양한 소재의 뉴스를 보도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너무 대비될 정도로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 주변을 통해 느끼기로는 공교롭게도 '국민 안전의 날'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이 되면서 사회 곳곳에는 안전 이슈가 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를 활발히 보도하고 있었기에 국민 안전의 날에 정부 입장은 물론 다른 분야의 소식까지 적극적인 보도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적어도 국민 안전의 날을 인지하거나 새삼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합뉴스TV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전문 공영방송사로서 금지와 사명을 잊지 마시고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저변 확대에 늘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올해는 국민안전의 날이 총선 직후여서 아무래도 총선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 문제는 주요한 화두 중 하나이므로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손영준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거나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